

대장암과 직장암



민진식
(연세의대 외과·교수)

대장은 일명 결장이라고도 하는데 해부학적으로 오른쪽 아랫배에 위치하고, 충수돌기가 붙어있는 맹장에서 시작되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으로 구분되고 S상결장에서 직장과 항문으로 연결된다. 대장은 전체 길이가 160cm내지 190cm 되고 직장은 대략 15cm이며 항문에 연결되는 부분이 대략 3cm정도 된다.

대장암과 직장암은 동물성 지방질과 고기를 많이 먹는 민족에게 많이 발생한다. 나라별로는 미국, 구라과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이들 나라 민족의 식생활이 동물성 지방질과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대장과 직장암의 발생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경향인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돼서 동물성 고기와 지방의 섭취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식생활의 변화와 연관깊어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이 있는 여러가지의 화학물질이 대장암과 직장암을 일으킬 수 있으나 사람에서는 증명된 바가 없다. 동물성지방과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사람에서는 대변의 양이 적고 대장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채소나 곡물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물을 많이 먹는 동양사람에 비하여 긴데 대장암 또한 서양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대장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대장안의 내용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면 음식물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대장안의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여기에 변화된 대장내의 세균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생이 높다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역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동물성지방과 동물성고기의 섭취량과 대장암 및 직장암의 발생률과는 상관관계가 있다.

다른 장기에 발생하는 암과 같이 대장암과 직장암도 50세 이후에 주로 발생되지만 간혹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된다. 대장암 및 직장암의 발생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가족성용종, 특발성 비특이성 궤양성대장염, 대장 및 직장용종 특히 용모성용종 같은 질환은 암으로 변화하는 병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장암과 직장암이 유전성이 있다는 확증은 없지만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있었던 선조를 가진 후손에서 발생률이 높은 경우가 있다.

임상증상

대장암 및 직장암도 다른 장기의 암과 같이 초기일때 즉 암이 아주 작을때는 임상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암의 발견을 위한 주기적인 검진 또는 다른 병으로 인하여 대장과 직장관계도 함께 검사를 하였을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대장암의 임상증상은 암이 대장의 어느 부위에 발생하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오른쪽에 있는 대장 즉 상행결장은 왼쪽에 있는 하행결장 보다 대장의 직경이 크고 그안에 있는 내용물도 액체성이기 때문에 상행결장에 암이 발생하였을때 암으로 인하여 대장이 막혀서 생기는 통과장애의 증상, 즉 폐쇄증상은 암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을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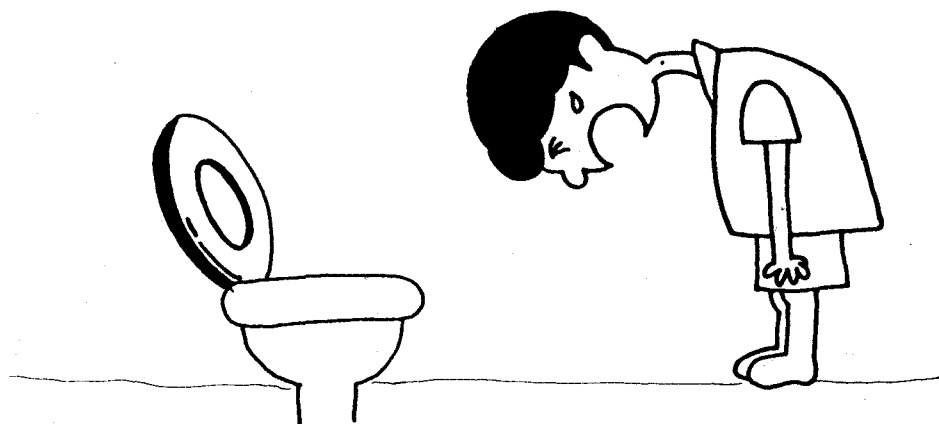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오른쪽 아랫배에 심하지않은 통증, 식욕감퇴, 소화불량, 빈혈, 체중감소 등의 막연한 증상이고, 오른쪽 아랫배에서 멍우리(종괴)가 만져지는 경우도 약 10%된다.

빈혈은 암이 있는 부위에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암부위의 출혈은 아주 드물게는 대량이 출혈되어 쇼크 상태에 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소량이 서서히 출혈되므로 대변의 색깔이 원래의 노르스름한 색깔이 아니고 커피를 끓이고 남은 찌꺼기의 색깔처럼 검정색을 띠게된다. 이러한 출혈로 인한 빈혈로 인하여 전신쇠약감과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변색깔이 검고 출혈 있어

왼쪽에 있는 대장 즉 하행결장 및 S상결장은 오른쪽의 대장보다는 직경이 작고 대장안의 내용물도 고형질이기 때문에 암이 자라남에 따라 대장이 비교적 일찍 좁아져서 발생되는 통과장애의 증상이 오른쪽 대장암보다는 일찍 발생되므로 왼쪽배에 통증을 느끼고 대변이 점차적으로 가늘어진다. 대변에는 곱같은 점액이나 붉은색의 피가 섞여나오나 어떤때는 대변이 검정색을 띠는 경우도 있다. 식욕감퇴, 소화불량, 체중감소 등도 나타난다.

직장에 암이 발생하였을 때는 증상이 비교적 특이해서 붉은색을 띠는 선혈 또는 점액이



석인 붉은 피가 대변에 섞여나오고, 대변 보기가 힘들며,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변소를 자주 다니게 되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 항문 주위가 아프고 흔히들 뒤가 무죽죽하게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한다.

대변을 볼때에 피가 나오면 흔히들 치질로 인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특히 항문 가까이의 직장이나 항문에 암이 생겼을 때는 대변시 출혈과 통증이 심하게 있으므로 치질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전체 대장암의 70%가량이 직장과 S상결장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장암 및 직장암의 진단에는 S상결장경검사와 수지진찰이 매우 중요하다.

직장암검사 매우 간단해

이들 검사는 또한 매우 간단하다. 항문에 들

재 손가락을 넣어서 진찰함으로써 약40%에서는 진단이 가능하고, 다음 단계로서 S상결장경으로 직접 직장과 S상결장을 눈으로 보면서 진찰함으로써 약70~75%에서는 진단이 가능하다. S상결장경은 길이가 25~30cm이기 때문에 이보다 깊이있는 대장을 진찰하기 위하여는 바륨대장 X-선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

미국의 암협회에서 대장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4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수지진찰, S상결장검사 및 대변에서의 잠혈검사(대변검사의 일종으로 아주 적은양의 피라도 섞여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1년에 한번정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들 검사는 아주 간단하고 시간도 몇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대장에 암이 있으면 아주 적은양의 출혈이라도 있으므로 대변의 잠혈검사에 양성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대장 x-선검사와 대장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병이 있는 부위와 암인지 아닌지 병의 성질을 확실하여야 한다.

예방법은 무엇인가

대장암과 직장암의 확실한 원인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예방의 방법을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역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동물성 지방질 및 고기섭취의 증가율과 대장암 및 직장암의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질의 과다한 섭취를 피하고 신선한 채소류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골고루 균형있게 섭취함이 바람직하다.

특히 도정을 덜한 현미, 보리, 옥수수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섬유질이 매우 좋다. 진한 색소와 방부제 등 화학물질이 포함된 음식물도 많이 먹지않음이 좋다.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은 다음의 질환에 대하여는 철저한 치료를 받음으로서 대장암 또는 직장암으로 변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가족성용종증

유전성이 있는 질환으로서 12세경부터 직장과 대장에 용종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1세경에는 직장과 대장 전체에 마치 두꺼비 잔등이 같이 사마귀 같은 용종이 수백개 내지는 수천개가 짝 깔려있게 되는데 수술을 하지않고 그대로 지내게 되면 전부에서 암이 발생되고 대

부분이 50세이상 살지 못한다.

증상으로는 가끔 또는 지속적으로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를 하는데 피와 고름 또는 점액이 섞여 나오고 대변이 고르지 못하고 빈혈이 나타난다. 가족 전체를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발견되면 곧 수술을 받아야 한다.

특발성 비특이성 궤양성대장염

서양사람 특히 유태인에게 많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매우 드물다. 확실한 원인은 아직 모르고 발병이 되면 하루에 여러차례의 설사를 하는데 피, 고름, 점액등이 섞인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복통이 흔히 동반된다.

전신쇠약감, 피로감, 빈혈등이 나타나고 열이 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경우 병이 심하였다, 덜하였다 하는 만성의 경로를 취하는데 육체적피로, 정신적피로 및 긴장이 심할때에 병이 심하여지거나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않고, 발병이 자주될 때에는 암의 발생률이 점차로 증가하게 되는데 1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는 10%정도이나 20년이 경과하면 20~25%, 30년이 경과되면 30~40%에서 암이 발생된다.

대장 및 직장용종

대장및 직장용종이라는 것은 사마귀 같은 혹이 직장이나 대장에 돋아나는 것을 말한

다. 대장과 직장용종은 대부분이 선종성용종인데 1개 또는 여러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크기도 몇mm에서 10cm가 넘는 경우가 있는데 직경이 2cm이상 될때는 암의 발견율이 약 45%가 되고, 용모성용종은 약 40~45%가 암으로 변화한다.

증상으로는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대변시 피가 나오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크기가 1cm이상 되는 용종은 절제하여야한다.

치료

소화성십이지장궤양 또는 손, 발 같은 곳에 생긴 염증과 같은 양성질환과는 달리 암이 무서운 것은 암은 발생한 장기에서 무한정으로 커져서 그로인한 병발증 등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기도 하지만 임파관이나 혈관을 통해서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 혹은 말기에는 사람몸의 여러곳으로 퍼져나가서 그로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대장암과 직장암도 암자체가 커져서 대장이나 직장을 완전히 폐쇄하여 대변을 못보게 된다. 또, 배가 불러져서 사망하기도 하지만 암이 발생한 부위의 대장이나 직장에 분포되어 있는 임파관을 따라서 배속의 여러 임파절에 퍼져가기도 하고 암세포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간, 폐, 뼈 또는 머리 같은 곳에 퍼져 거기에서 암세포가 자라나게 되어 사망하기도 한다.

몸속의 여러곳에 암이 퍼져있으면 대개의

경우는 치유시킬 수가 없다. 대장암과 직장암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제화학요법, 면역요법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술로서 깨끗하게 완전히 절제하여 내는 방법 뿐이다.

대장은 해부학적으로 가장 안쪽이 점막층이고 그 다음이 점막하층, 근육층 그리고 제일 바깥쪽이 장막층인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암은 점막층에서 시작되어 진행되어 갈수록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먹어들어가고 더 진행이 되면 대장에 인접하여 있는 조직이나 장기를 먹어들어가는 동시에 대장이 좁아지고 더 심해지면 막히게 된다.

전이부위까지 깨끗이 절제해야

암은 대장에서만 커져가는 것이 아니고 임파관을 따라서 여러곳의 임파절로 퍼져가고 진행이 많이되면 혈관을 통해서 몸속의 여러 장기에도 퍼져가지만 간, 폐, 뼈 등에 흔히 퍼져간다. 따라서 대장암과 직장암에 대한 수술은 암이 있는 대장이나 직장의 부분을 포함하여서 광범위하게 임파절까지 철저히 절제하여야 완전함은 물론 완치의 확률도 높아지므로 대장암과 직장암의 수술은 암에 대한 수술만을 전문으로 하는 암 외과의사가 시행하여야 좋을 것이다.

직장암 특히 직장의 하부 1/3에 즉 항문으로부터 4~5cm이내의 거리에있는 직장암은 수



대장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4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수지진찰, S상결장검사 및 대변에서의 잠혈검사 <대변검사의 일종으로 아주 적은양의 피라도 섞여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1년에 한번정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들 검사는 아주 간단하고 시간도 몇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술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는 항문까지 포함 하여서 광범위하게 절제하여야 하므로 인공항문인 결장 조루술이 불가피하다. 인공항문을 만들었을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같이 인공항문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정보와 편리한점 등을 교환하고 의논하여 주는 친목단체인 「오스트미」 협회가 있어서 아주 유익하다.

조기발견해야 완치율 높아

이상과 같이 암수술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범위한 임파절까지 포함하여 깨끗하게 떼어냈을 경우<근치절제술> 암이 점막층이나 점막하층에만 국한된 조기암의 경우는 완치율이 90%이상되고 근육층까지 먹어들어갔을 경우에도 약70%된다. 임파절에 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술후에 재발률도 높아지므로 수술하여 떼어낸 수십개의 임파절은 현미경으로 정밀검사하여 임파절에 전이가 있을 경우는 재발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술부위가 완전히 아문 다음에 방사선치료를 시작한다.

S상결장이나 직장에 생긴 암이 많이 진행되어 주위의 조직 특히 골반뼈에 붙어있을 때는 깨끗하게 떼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전에 일정한 양의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 암의 크기를 어느정도 줄여놓은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후 경과가 훨씬 좋다.

수술후 최소한 5년간은 정기적으로 진찰과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근치수술을 받으면 90%이상 완치되듯이 만약에 재발이 됐을때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좋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간이나 폐에 생긴 재발도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면 완치율이 꽤 높다. 수술후 3년간은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찰과 검사를 받아야 하고 3년이 지난 다음 2년간은 1년에 2~3회 정도 정기적인 진찰과 검사를 받고, 수술후 5년이 지난 다음에는 1년에 1회정도 진찰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암과 직장암은 완치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여 완전한 수술을 받으면 약 90%가 완치된다.